

지역 매 아리

김제시보건소, 조례개정

2019년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2019년 새해부터 조례개정을 통하여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째아에 대한 지원 금액이 없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수평적 인구유출 억제에 최우선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아부터는 10회 분할 지원된다.

이번 출산장려금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김제시의 임신부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스트레스 해소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출산율 향상과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기존 출생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출산축하용품 꾸러미를 맘앤베이비 출산교실에 참석한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출산축하용품과 상품권이 혼합 지원되며 아기수유세트, 아기간식세트, 아기출세트 3종류 구성 중 필요에 따라 선택, 수령이 가능하며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완주군 '사랑의 빨간나누기 행사'

관내 독거노인 등 13가구 지원

완주군이 목재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나무를 난방용 빨간으로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도왔다.

완주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중 목재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나무를 수집해 관내 독거노인 등 13가구에 겨울철 난방용 빨간을 지원하는 '사랑의 빨간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지난 2월초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산림청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발된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들은 숲가꾸기 산물 900m³를 수집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산물,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방 효과를 갖고, 수집한 산물을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면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틸 등 연료비가 비싸 화목, 아궁이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빨간 나눠주기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빨간연료를 확보해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6일 완주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철회와 여론조사 시행을 촉구했다.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도내 시민단체 “인상 철회

여론조사 시행해야” 촉구

“공청회 군민의견 무시” 지적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인상을 놓고 전북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6일 완주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와 여론조사 시행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다른 시·군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을 수준인 2.6%에 맞춰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 완주군의 의정비는 현저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오늘 10시에 열리는 공청회는 “군민을 무시하는 공청회는 의미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소수의 주민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청회 참여 주민수는 150여명 선

로 집계됐으며, 이중 126명만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공청회 개최 목적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의정비 인상이 원안 가결될 경우, 군민 갈등도 예상된다.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26일 오전 10시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전택군 완주군의회 비서의 위원의 주재로 여성연, 김원호 씨가 찬성자 패널로, 이주갑, 이의정 씨가 반대자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의정비 인상안 찬성 패널측은 “현재의 의정비로는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또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상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대 패널측은 “현재 의정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방자치법 의원 겸직 법률 조항을 보면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출되기 전 다수의 의원들이 사업을 영위해 왔던 것

을 주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지역농민들과 산단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인상률이, 따라서 공무원 인상을 등 적절한 선에서 인상안이 결정됐으면 한다”고 인상안 반대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청회 참여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찬성측 주민들은 찬성 패널들과 똑같은 의정비인상안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반대측 주민들도 도내 최고의 인상안은 이해할 수 없다. 적절한 선에서 인상안을 도출해야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하지만 완주군의 주민공청회 참여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 150여명 만이 참여해 공청회 개최 문제점을 놓고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평일 오전 10시 공청회가 개최돼, 주민참여가 저조하자 “진정한 주민 참여가 아닌 인맥에 의한 참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가 농산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김제시, 농산시책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최초 3년 연속 쾌거

김제시가 전국 최초 3년 연속 농산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26일 밝혔다. 농산시책추진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기초단체의 쌀 수급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시책 및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김제시는 2018년 농산시책추진 지자체 평가에서 2016,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국에 유례가 없는 수상으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물로 보인다.

특히 김제시는 올해 쌀 안정생산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인 논 타작물 전환 면적 목표 1,257ha 대비

2,020.9ha 확대 160.7% 초과 달성하여 전국 1위의 전환면적을 기록하였고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 교육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쌀 선도 경영체교육훈련 과정 참여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관계공무원 및 농가들이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쌀 안정생산 확보에 힘썼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농업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농업을 육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잘 사는 농촌 실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경제도약 정의로 운 김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기획감사실, 지구촌마을 방문... 위문품 전달

김제시 기획감사실(실장 박민우)은 최근 연말을 맞아 지적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인 김제 지구촌마을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작년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번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선물을 펼쳤던 기획감사실은 올해도 사회복지시설인 지구촌마을을 방문하여 필요한 위문품 전달, 말벗되기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선행은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수상한 정부혁신 대통령 기관 표창,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선정 등과 역대 최고 국가예산 7,031억원 확보, 인구감소 통합지역 공모사업 선정



등의 성과에 힘입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담인센티브 포상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선행을 펼쳐 나눔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동차특장산업 메카 조성 탄력

백구제2농공단지 투자 예정기업 업무 협약체결

김제시는 26일 시청 2층 상환실에서 '백구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해 특장차업체 9개사와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 김영자 시의회 부의장과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는 기업투자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백구 제2농공단지 원활한 조성에 노력하며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은 투자 이행과 고용창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약속하였다.

백구농공단지 바로 인접하여 조성될 예정인 백구제2농공단지는 약 29만㎡의 규모로 조성되며 2019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입주의향을 제출한 17개사 중 일부인 9개사를 대상으로 분사 이전, 신설 등을 통해 507억원이 투자되고 215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며, 협약 체결 규모만으로도 분양 예정면적의 88.5%에 달해 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장차는 구급차·소방차·

사다리차·캠핑카·청소차 등 생활·문화와 근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김제시는 이러한 특장차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준공한 백구농공단지는 분양을 시작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100% 분양 완료되어 28개사가 입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 4월 개소한 특장차지기인증센터는 인증장비 12종·성능시험장비 10종을 갖추고 있어 생산과 인증을 윈스톱으로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